

장마 닳치는데...아직도 복구 중 작년 수해주민 '장마 공포'

예산부족 공사 차질...2차 피해 우려

21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지난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했던 수해 복구공사 가운데 일부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 재발이 우려된다. 또 광주·전남지역 상습 침수지역 등 일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 방지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완료되지 못해 대형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도내에서는 모두 1천138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 이날 현재까지 모두 548억원의 복구비를 들여 1천130건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비교적 공사 규모가 큰 공사는 공기(工期) 부족 등으로 장마철이 지나서야 완공될 예정이어서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보성군 철동저수지 수해복구공사를 비롯, 여수 부영여고 뒤 시도·생동천 복구는 11월 초 중순까지, 여수 덕계천 복구 사업은 10월에야 끝나도록 계획돼 있는 등 모두 8개 대형 복구 사업이 장마철이 지나야 마무리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피해 규모가 커 모두 95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여수 연등천 수해복구 사업은 발주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

생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발생한 5건의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를 모두 끝냈지만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예산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다. 상습침수지역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일부 지역과 호주시 상습적으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남구 방림동 비탈길 등 일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가 예산 부족(국비 미확보)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북구 용봉동 일대에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를 막기 위해 펌프장이 필요하지만 10억원의 예산(국비 60%·시비 40%)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를 끝내지 못했으며, 방림동의 비탈길은 태풍이나 폭우시 흘러 내린 토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역시 24억원의 예산이 없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10억원 이하의 소형 복구사업은 이미 99% 완공한 상태다. 문제는 10억원 이상 대규모 수해복구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 복구공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의 공사를 먼저 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착취기자 unipark@kwangju.co.kr



21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지만 광주·전남 상습 침수지역과 절개지 등의 재해 위험은 상존해 있다. 20일 화순 능주~이양간 도로 확장 현장에서 인부들이 장마에 대비한 보호망을 도로 옆 절개지에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부터 장마...내달 하순 소멸

21일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오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일본 규슈 남쪽 연안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21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까지 한두 차례 비가 더 온 뒤 개겠다"고 20일 예보했다.

또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

강한 바람과 함께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30~70mm로,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 하루 정도 일찍 시작돼 7월 하순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기간은 32일이다. /김여울기자 wool@

우암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임홍보실 (062)970-0114 ▶ T.(062)970-001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임홍보실 1588-5051 ▶ T.(061)360-5000

넌센스 CRACKER

'넌센스' 티켓 발매중!!

2007.6.30-7.1/광주문예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서남권특별법 오늘 상정

F1특별법은 심사소위 심의...정치권·전남도 공조 절실

낙후지역인 전남 서남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서남권 특별법'(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고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F1 특별법'(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예정대로 21일 심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편〉

그러나 서남권 특별법과 F1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정치권과 전남도 등 자치단체의 대 국회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국회 건교위 중도개혁통합신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당초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조 일현 건교위원장과 윤두환 한나라당 간사가 서남권 특별법 상정에 합의했다"며 "21일 서남권 특별법은 건교위에 정식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남권 특별법은 공청회 및 법사위 심의 등의 국회 일정을 고려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남권 특별법이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위에 상정된 데다 오는 26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 심의에 넘겨지기까지는 5일의 기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현실적으로 시한이 촉박하지만 서남권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문화관광위로 넘겨진 F1 특별법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진통이 있었으나 당초 예정대로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F1 특별법은 21일과 22일 법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께 문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달 1일 법사위에 상정, 2일이나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선호(영남·장흥) 의원은 "위원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다소 진통이 있었으나 여야간에 정상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선관위 결정' 헌소 낸다

빠르면 오늘...한 "대선 개입 의도" 비난

청와대는 20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원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 빠르면 21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주 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헌법쟁송의 방식은 권한쟁의심판청구보다는 헌법소원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헌소 제기는 빠

르면 21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실장은 헌법소원 제기사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헌재 결론 전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선관위 결정과

권한은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미 밝힌 바 있고, 다만 그 기준에 대해 알 수 없으니 필요하면 선관위에 질의해 가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이가 없다. 선관위 결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데, 청와대가 이를 번번히 알면서도 논란을 장기화하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52회 호남예술제 미술·신문·시·농솔부문 입상자 ▶14·15면

국제약품 기원라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겐터윈은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어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입술에 비타민을 주자

SENSTICK

아름다운 입술